

## (5월) 여수신 동향: 보다 확대된 대출성장

김지원

금융 | jjwonkim@daolfn.com

### ● 여신 동향

예금은행 5월 대출은 양호한 대출성장률 가능성을 전월에 이어 지속 확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 다만, K자형 성장에 따른 변동 가능성 유의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따라 우선 예금은행 2026E 연평균 대출성장률 4.1%으로 상향

가계대출 잔액 증감폭 +6.9조원(vs. 26년 4월 +2.1조원 vs. 25년 5월 +5.2조원)

기업대출 잔액 증감폭 +10.6조원(vs. 26년 4월 +10.7조원 vs. 25년 5월 +8.0조원)

가계대출 잔액 1,181.8조원(비중 45.6%; YoY +2.3%, MoM +0.6%),

기업대출 잔액 1,408.3조원(비중 54.4%; YoY +4.6%, MoM +0.8%)으로,

합산 대출잔액 2,590.1조원(YoY +3.5%, MoM +0.7%). 증감폭 기준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전년동기비 및 전월비 확대. 추세적 흐름 확인상 YoY 변화율 기준으로는,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 성장률 확대 흐름 지속

가계대출의 여신종별 잔액 증감폭은 주택담보대출 +3.2조원(vs. 26년 4월 +2.7조원 vs. 25년 5월 +4.1조원), 신용대출 포함한 기타대출 +3.7조원(vs. 26년 4월 -0.6조원 vs. 25년 5월 1.1조원). 주담대는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폭 축소 지속이나, 전월비 연이은 증가폭 확대. 이유는 수요 측면으로 해석. (1) 전월에 이은 주택거래 및 기분양물량 증도급 납부 관련 대출수요 영향: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이어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 전후로 강남3구 외에도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중저가 매물 수요 증가로 해석. 이에 아파트 포함 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 흐름. (2) 또한, 1금융권 은행으로의 수요 이동 영향. 정책대출 금리 상향과 2금융권 대출 취급 중단. 4월 이후 은행권 자체 취급 주담대 증가폭 확대. 그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형 주담대 수요 증가했을 것으로 추론. 대출 시차를 고려해 6월까지 동향 확인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 유지. 한편, 전세자금대출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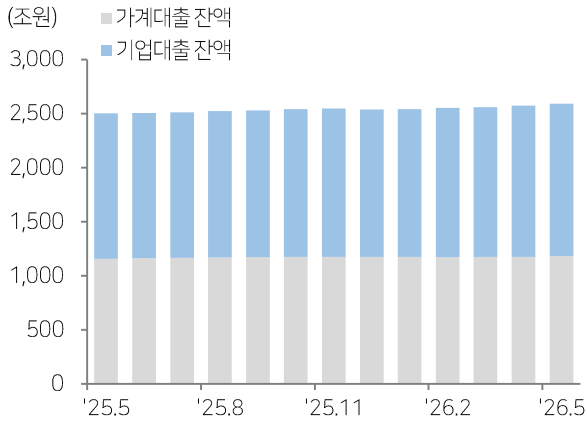
기타대출은 큰 폭의 증가 전환 (1) 5월 계절적 자금 수요 증가, (2) FOMO 심리 작용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 영향. 후자 요인 작용은 6월에도 유사할 개연성 존재

기업대출의 여신종별 잔액 증감폭은 대기업 대출 +5.2조원(vs. 26년 4월 +5.0조원 vs. 25년 5월 +5.4조원), 중소기업 대출 +5.4조원(vs. 26년 4월 +5.7조원 vs. 25년 5월 +2.6조원). 대기업 대출이 보다 확대된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흐름은 지속. 대기업 대출은 은행 대출 영업 확대의 공급 측면과 기업 운전자금 수요 증가의 복합. 전년동기 일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급증 기저 작용이 있으나, YoY 변화율 흐름상 기업대출 성장세 이어지는 중

### ● 수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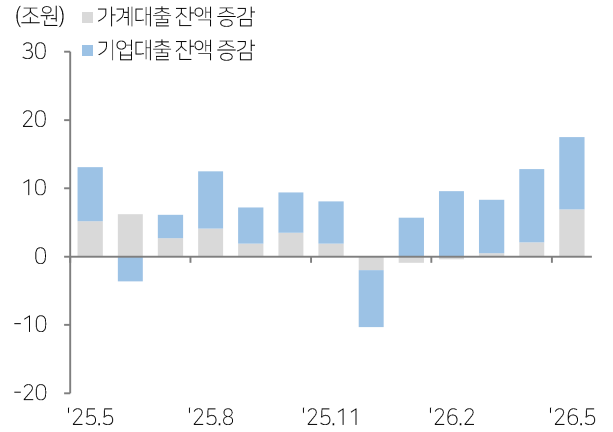
예금은행 5월 수신은 다시 증가 전환. 전월비 증가폭 +48.8조원(vs. 26년 4월 -6.8조원)으로 변화. 수신잔액 2,593.7조원(YoY +6.6%, MoM +1.5%). 대기업들의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며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 증가 전환 및 증가폭 확대. 동 흐름의 지속성 여부는 확인 필요 판단

Fig. 1: (5월)대출잔액: 가계 MoM +0.6%,기업 MoM+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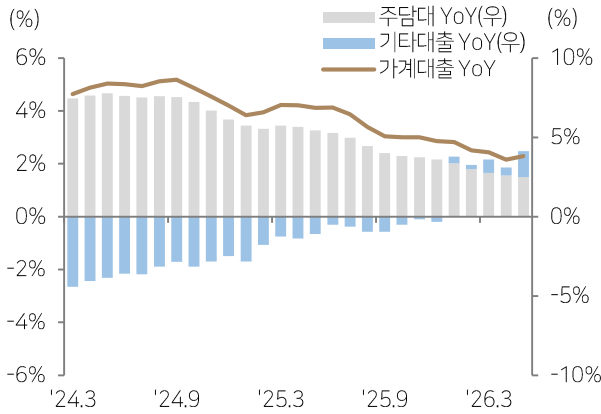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2: (5월)대출잔액 증감: 가계+6.9조원,기업+10.6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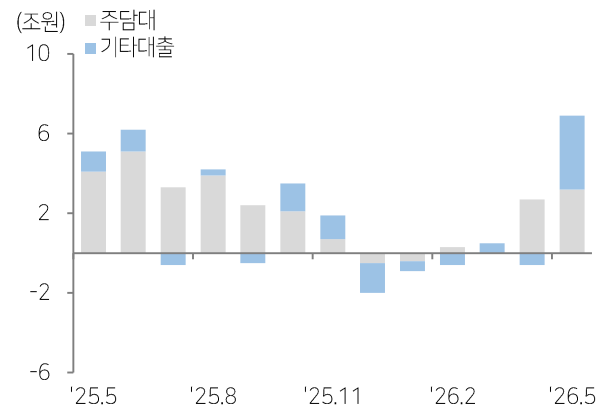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3: (5월)가계대출 잔액 YoY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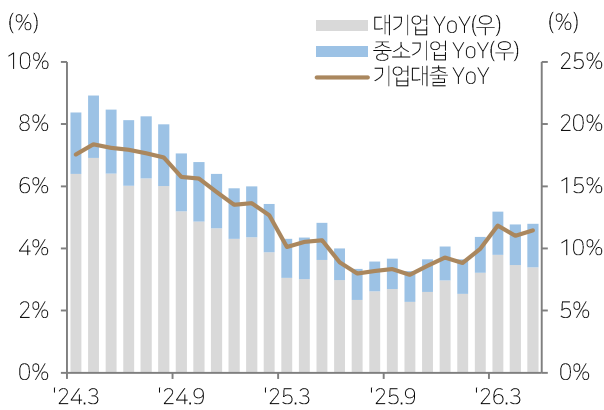
Note: 항목별 증감율을 단순 누적하여 기여도 확인 목적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4: (5월)가계대출 증감: 주담대+3.2조원,기타+3.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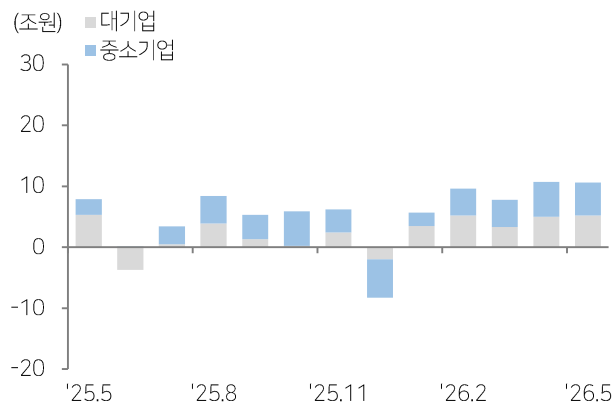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5: (5월)기업대출 잔액 YoY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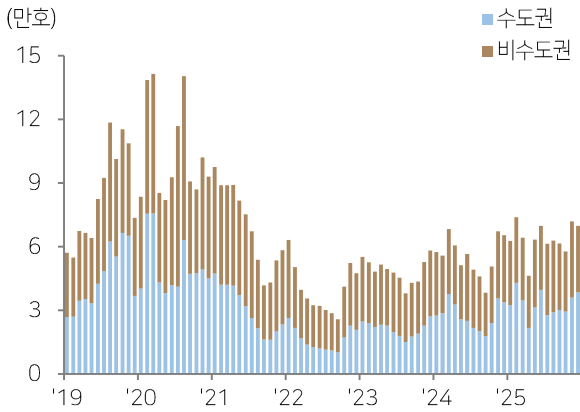
Note: 항목별 증감율을 단순 누적하여 기여도 확인 목적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6: (5월)기업대출 증감: 대기업+5.2조원,중소+5.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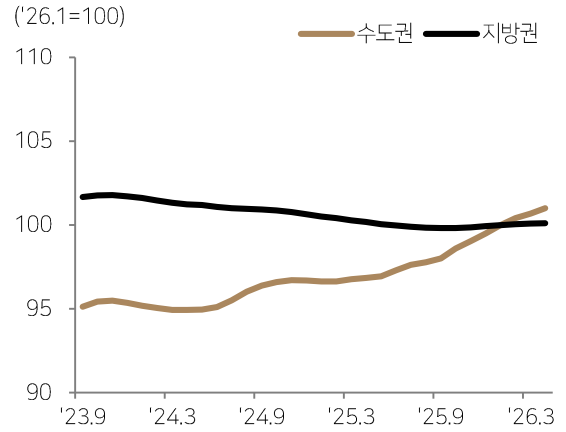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7: (주택총합)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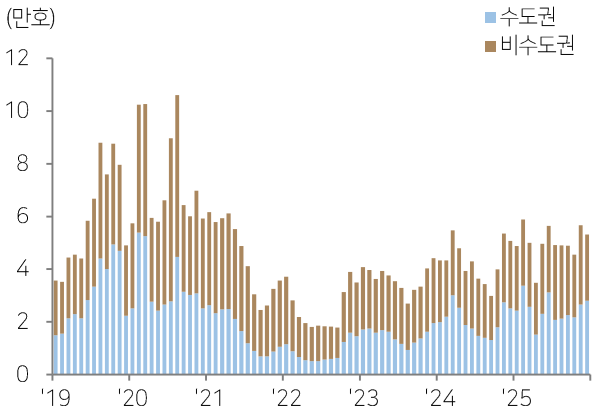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8: (주택총합)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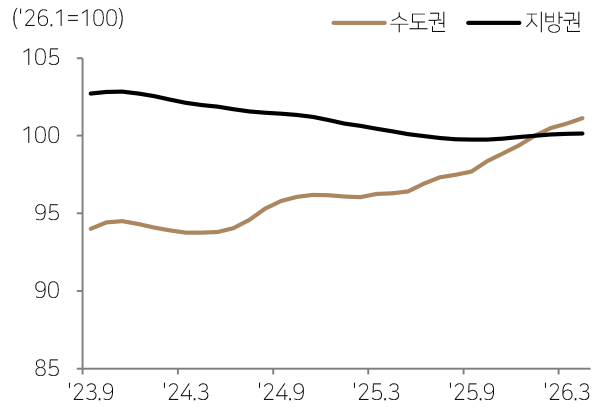
Note: 26년 1월 지수 기준 시점 변경된 점 감안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9: (아파트)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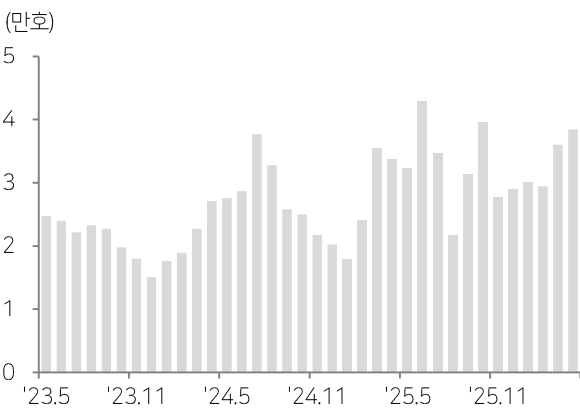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0: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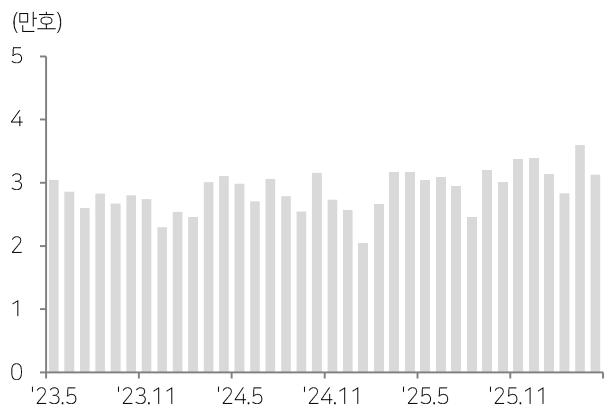
Note: 26년 1월 지수 기준 시점 변경된 점 감안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1: (주택)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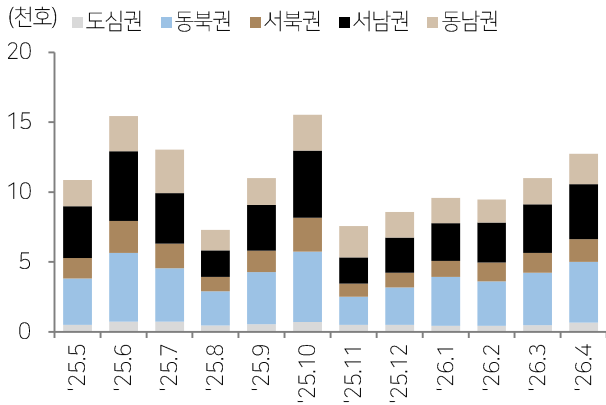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2: (주택)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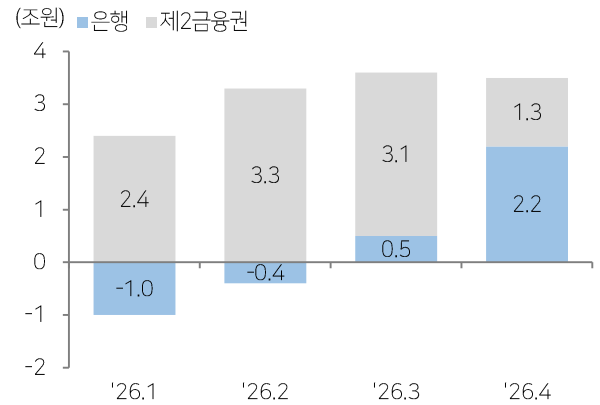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3: (주택) 월별 매매거래량: 서울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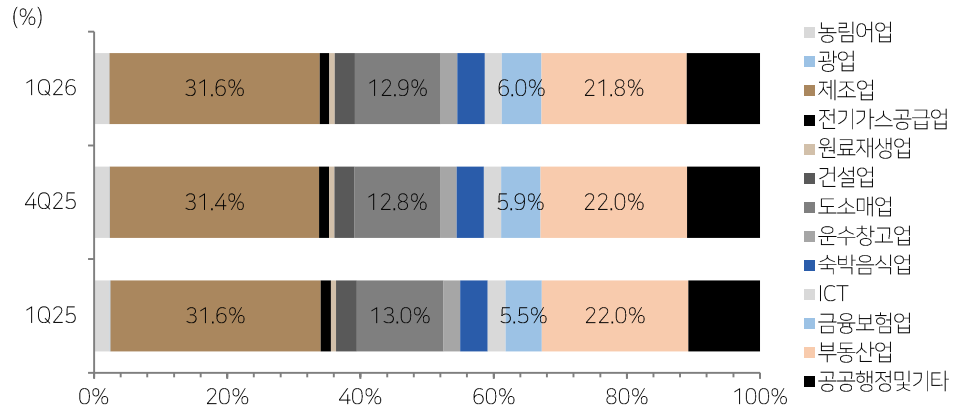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4: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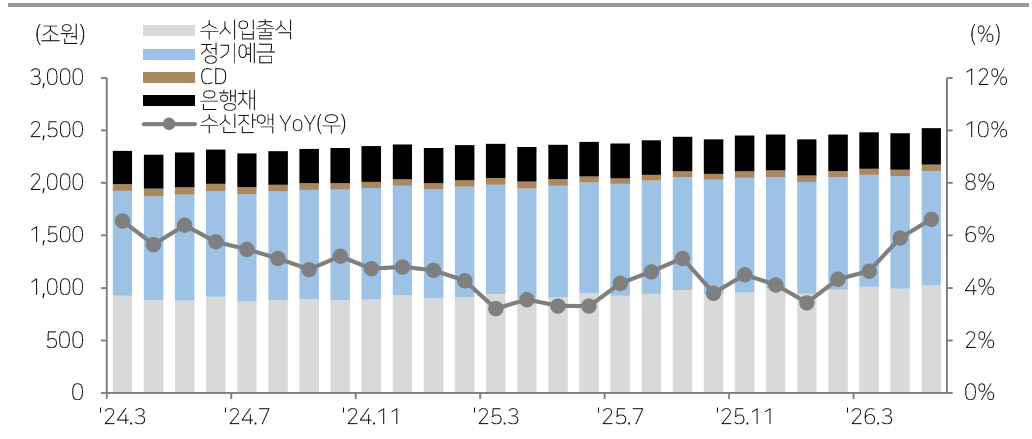
Source: 금융위원회, 다올투자증권

Fig. 15: 예금은행 대출금 내 산업군별 비중: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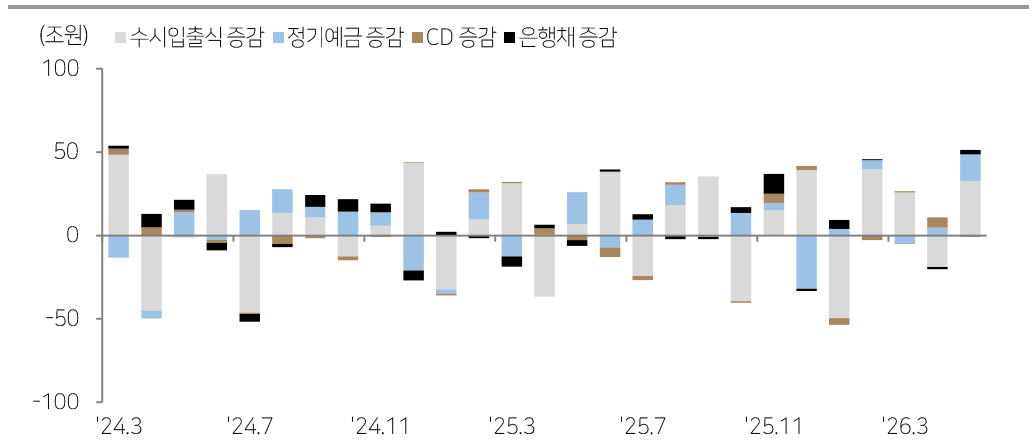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6: (5월) 수신 유형별 잔액 및 총 잔액 YoY 변화율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7: (5월) 수신잔액 증감: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 증가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이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91.7% | HOLD: 8.3% | SELL: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